

우리 모임에선

전남경찰청 정기법회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는 8일 오후 6시 30분 향림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40여 회원들은 천운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지고, 11월 성지순례 장소에 대해 논의한다.

경희의료원 3사순례

경희의료원 불자회는 11일 충남 지역 3개 사찰을 순례한다. 45명의 회원들은 갑사, 신원사, 관촉사 등을 차례로 참배해 불심을 키우고, 송년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정인련 연주암 추계법회

전국불자교정인련연합회는 10월 21일 관악산 연주암에서 추계법회를 가졌다. 이날 10개 지회 60여 회원들은 법회를 봉행하고, 각 지회에서 인근 지역의 고아원 및 양로원 등과 자매결연해 후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경찰서 경승실 개원



경기도 안성경찰서 유마회는 10월 30일 '경승실 개원 및 불상봉안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 유마회 회원들 비롯해 160여 경찰 불자들은 안성경찰서 경승실장 정호스님(안성 대흥사 주지)의 법문을 듣고 활발한 신생활을 서원했다.

한빛은 서울·부산불자회

10·11일 직지사 합동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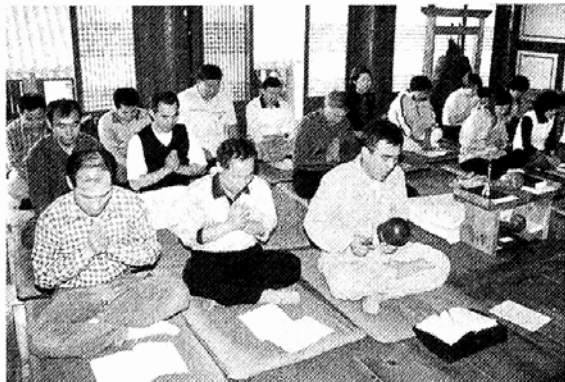
한빛은행 서울불자회와 부산불자회가 10-11일 김천 직지사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합동법회를 주관하는 부산불자회 허명찬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빛불자회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11:00-24:00)  
☎ 021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12:00-24:00)  
☎ 021722-4162

경전배우기로 신심 '새록새록'

"경전 강독을 시작하고 보니, 회원들이 금강경 수침을 들고 다니며 여가 시간에 독송하는 등 예전과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법회 참여도도 확연히 증가해, 불자회 활동에 탄력이 붙고 있어요." 매달 넷째 주 수요일 정기법회 때마다 금강경을 배우고 있는 경북 경산 조폐창 금강회 운중우 회장의 말이다.



◇매월 법회 때마다 천수경을 배우고 있는 수협중앙회 불자회가 경전강독에 앞서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다.

법

회나 성지순례 때 반야심경이나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 등을 입으로만 외우던 금강회 회원들이 경전의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을 배우면서 환희심을 얻고, 불법 탐구와 이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강회 뿐만 아니라 입암연구회 불교연구회, 대우종합기계 KAI불교법우회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약스님(경북 경산 보리원 주지)에게 금강경을 배우고 있는 금강회 회원들의 실천력은 대단하다. 뜻도 모르고 읽던 경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된 회원들이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는 서원을 세운 탓에 법회 참석률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특히 회원들은 참불자의 길을 팔정도야 육바라밀의 실천에서 찾자는 데 의견을 모아 '기본에 충실함이다'라는 금강 생활불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역시 경전의 이해로 생긴 힘이 뒷받침됐음은 물론이다. 금강회가 개설, 운영되고 있는 서예 및 한문교실에 회원은 물론 그 가족과 퇴직한 명예회원들까지 대거 참여할 정도로 걸속력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창립 이후 매월 두 차례씩 경전 강독을 해온 입암연구회 불교연구회(회장 최경) 역시

조폐창·KAI 등 경전공부모임 활발 "법회가 즐거워요" 회원 참석률 '부쩍'

자재 소식지인 <입암 불교>를 발간해 종단 및 다른 단체에 배포할 만큼 원력을 키웠다. 회원 수도 9명에서 3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방 출장이 잦고 제출할 보고서도 많은 연구원에서 매월 두 차례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경전을 읽는 회원의 모습에 자극 받은 일반 연구원들까지 소식을 접했다. '부쩍'이라는 일반 연구원의 호기심이 불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연구회의 경전 강독을 지도하고 있는 이태수 교리부장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최근 자신의 소장 불교도서 88권을 불교연구회에 쾌척했다.

불교연구회는 이를 입암연구원의 도서관에 비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원들에게 불사의 향기가 퍼져가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 성주사에서 유식 강의를 듣고 있는 대우종합기계 KAI 불교법우회(회장 전진환)는 회원들 스스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서원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 성주사에 참선방을 열고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 의문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되니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전진환 회장은 "경전강독, 정기법회, 성지순례, 체육활동 등 매월 네 차례 모임을 가질 만큼 불자회가 활성화 된 것도 경전 읽기 모임이 기초가 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수협중앙회 불자회,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운전자불자연합회 유니텔불교동호회, 경주구치소 불심회 등도 경전공부를 통한 모임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불자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경지부, 국립의료원 등은 경전 강독을 지도할 스님과 법사를 섭외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다른 신행단체와 연계해 지역통합 불자기구를 만들어 불 '요양'이라고 말했다.

사천시청불자회는 회원들의 불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리공부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관내 80여 사찰을 돌며 정기법회를 봉행, 지역 사찰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큰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강화서 자비인술로 무료진료

7개 병원 불자회 4백여명 돌봐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 강화군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내 체육관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 소속 국립서울시립정신병원, 국립경찰병원, 중국대강남한방병원, 경희의료원, 한일병원 등 7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47명의 의료봉사단원들, 강화군 백련사 주지 혜성 스님의 추천으로 자비인술을 펼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의료봉사단은 환자를 만나기에 앞서 간단한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저희가 갖고 있는 의술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중생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겠습니다."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자 지역 주민들이 하나 둘씩 진료소를 찾아왔다. 인근에도 보건소가 있긴 하지만 감기 몸살 등 간단한 치료밖에 받을 수 없어, 서울에서 의사들이 찾아와 무료진료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다리가 아파 뜸을 뜨고 나온 한 할머니는 "추수를 한 탓인지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곳을 찾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의료봉사단은 내과 100명, 치과 71명, 안과 77명, 한의과 153명, 물리치료 42명 등 모두 438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단이 10월 28일 강화군민을 무료진료하는 모습.

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전국병원불자회 김주호 회장은 "의료봉사가 의료 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부 아니라 그들에게 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자비사상으로 심리적 안정까지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마음으로 베풀면 삶 즐거워요"

보현법우회 수안스님 법회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불자사원들의 모임 보현법우회가 14일 계동사에서 수안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보현법우회가 발간하는 회보 <법우>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법문과 생활불교,

법회일정 등의 내용을 수록한 <법우>

는 거제 지역 관공서와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 보내지고 있다. 보현법우회는 98년 경남 거제에서 수안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봉행한 이래로 매년 불자모임으로 매주 정기법회는 물론 소년소녀가장 돌기, 환경 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온 신행

단체이다. 처음 15명으로 시작된 보현법우회는 현재 160여 회원이 활동하는 신행단체로 성장했고, 현재 거제불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 주도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원점복 회장은 "보현법우회는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은 물론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거제 지역을 불국토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알림

▲ '종교인의 역할' 세미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박종화)는 8일 오후 4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국민화합증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2250-2231

모집

▲ 무의탁노인 겨울나기 후원금=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노인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 방법은 무통장입금(서울은행 34708-1392249) 및 ARS 전화(700-0747)를 이용. (02)385-1351

▲ 장애여성모임 참여 희망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으로 입인 '빛이 되는 사람들'의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련되며, 여성장애인 소식지 제

게시판

작, 아와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02)989-4215

▲ 노인 고용할업체=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업체를 모집한다. (031)919-8677

▲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 희망자=군포매의종합사회복지관은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할 노인들을 모집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31)298-3096

▲ 초등학교 지도 도우미=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방학후 초등학교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대학생이며, 봉사내용은 아이들의 개별 학습 및 놀이를 지도. (02)817-8052

▲ 한우리 회원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동아리인 '한우리' 회원을 모집한다. 한우리의 봉사는 내용은 말발찬 배달 및 시설 봉사. (02)852-0525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복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靑潭大宗師 30週忌 追慕大法會案內  
행담 대종사 30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5년 11월 12일 (음력 9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문의처: 도선사 중무소 02) 993-3161-3  
불기 2545년 11월 7일  
회주 이해성 주지 김광복 청담 문도회 일동

남북통일 및 인류평화 기원 대법회  
(재) 대한불교 일통선교종 경남교구 제5대 중무원장 취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재)대한불교 일통선교종 제5대 경남교구 중무원장 취임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교계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의의장: 박수암  
중무원장: 이경수  
일짜: 불기 2545년 11월 13일(음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남 고성읍 신공설운동장 뒤 새마을 복지회관  
연락처: 중무원장 055)672-2876 중무국장 055)673-7418  
주최: (재)대한불교 일통선교종 경남교구 중무원  
후원: (재)대한불교 일통선교종 중무원  
직인무효공고  
불기 2545년 10월 25일 이전에 사용하던 (재)대한불교 일통선교종 경남교구 중무원장 직인은 공고 이후에는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2001. 11. 1  
(재)대한불교 일통선교종 경남교구 중무원장 이정수 합장